



## 손 대접

박경옥

“또 자기를 청한 자(바리새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눅14:12-14).

‘손 대접’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다. 헬라어로는 philoxenia라고 하는데, 친족이나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phileo)와 나그네를 뜻하는 세노스(xenos)가 합하여 된 말이라고 한다. 따라서 손 대접은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손 대접은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신약 시대에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가 손 대접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일 정도였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

### 사라지고 있는 손 대접 전통

1) 물질주의와 경쟁 사회: 우리는 심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으며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상황에 눌려 살다 보니 우리 주위에 있는 나그네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리고 사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귀중한” 시간과 돈,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2) 인간의 이기심: 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시민의 95%가 한 달 동안 모르는 사람과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느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남겨 둘 여유가 없다. 그들은 아마도 세금을 내고 일년에 한두 번 자선 단체에 기부금을 낸 것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3) 가족(이기)주의: 한국에 흔한 형태로서, 가족, 친구, 아는 사람, 지연, 학연 등 무슨 끈이 연결된 사람에게는 한계도 없이 마냥 잘 해주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등을 돌린다. 사람을 만날 때도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난다. 같은 교육 수준, 같은 경제 수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등 소위 ‘끼리끼리’ 문화라고나 할까?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4) 극도의 개인주의: 우리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라고 배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창피하다고 배운다. 전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은 아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스스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서로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나그네가 많은 사회라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기 때문에 가정이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게 된다. 자주 거처를 옮기고 자기만의 계획들을 가지고 산다. 따라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되었다. 그러나 서로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따로따로 나그네가 되어 떠돌아다닌다.

5) 인간의 죄성: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도 분리(소외)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 성경에 나타나는 손 대접의 모양

자신의 집에 여행객을 맞아들여 먹이고 재우고 보호하는, 겸손하고 은혜스런 대접

(창18:2-8, 19:1-8; 욥31:16-23, 31-32)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이 자신의 발의 수확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관습

(레19:9-10, 신24:19-22, 룻2:2-17)

혈벗은 사람을 입히는 것 (사58:7, 겔18:7,16)

수확의 1/10을 떼어 내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것 (신14:28-29, 26:1-11)

외국인을 이스라엘의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 (출12:28-29, 신16:10-14)

함께 식사: 고대에는 누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삶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했다.

거기에는 친밀함과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 (눅11:37, 15:1, 19:5-6)
- 성찬 (막14:17-26)
- 예수님 부활 후의 식사 (눅24:30-31, 40-43; 요21:12-13; cf. 행1:4, 10:41)
- 고넬료와 식사한 베드로 (행10:48-11:3)
-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식사 (행2:42-47)

### 손 대접의 기원과 모델로서의 하나님

1) 구약에서 -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그네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의존되어 있는 나그네로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받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출16; 신8:2-5).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해 내셔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셨다(레25:23). 그리고 그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 비옥한 땅과 풍성한 자식들을 주셨다(신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된 땅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었으며 그들은 청지기에 불과하였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친절한 대접을 베푸시는 주인으로서 모든 인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계신다(창1:29-30, 2:9, 3:21; 시104:10-15, 136:25). 그 중에도 특별히 소외된 사람

들을 돌보신다.(출22:22-24; 신10:17-18; 시145:14-16, 146:9)

2) 구약에서 - 주인으로서의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존엄히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다. 손 대접은 의의 행위요, 거룩한 행동이었다. 아브라함이 그 모델이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 가셨다(창18:2-8). 아브라함은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그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매우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은 것처럼 자신들도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는 명령을 받았다(출 23:9; 레 19:33-34; 신10:19; 사58:6-10).

3) 구약에서 손 대접의 다른 예들: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나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을 들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푸대접을 한 예로 소돔 사람들(창19), 기브아 사람들(삿19), 그리고 나발(삼상25)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리석고 악하고 부패한 성품을 가졌다는 점이며 이들은 푸대접 후 모두 파멸하였다.

4) 신약에서 - 나그네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거나 반기지도 않는 이 세상에 소외된 존재로 오셨다(요1:10-14). 그러면서도 사역을 하면서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눅9:58, 10:38).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여 “죄인”들의 손님이 되기도 하였다(막2:15; 눅14:1; 19:1-10). 마침내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신을 낮춰 소외된 자의 수준으로 내려 가셨으며(마25:31-46), 부활 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신을 손님으로 주고 계신다(계3:20).

5) 신약에서 - 주인으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세상을 받아 주는 주인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출26), 예수님도 궁핍한 이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셨으며,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사건 중의 하나는 5,000명을 먹이신 것이다(막6:30-44).

예수님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은 성만찬에서 정점에 이르는데,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영적으로 먹이시는 “식사” 자체가 되셨다(막14:12-26; 요6:30-40; 1Cor.10:16-17).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식사의 상징적인 의미와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몸은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고통의 빵으로, 자신이 흘리는 피는 구원의 잔으로 연결지으셨다.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의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사25:6; 마8:11; 눅14:15; 계19:9).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위대한 주인이 되신다.

6) 신약에서 - 나그네로서의 그리스도인: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 교회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요15:18-19; 벰전1:1, 2:11). 믿을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당했던 것이다(벰전4:12-16). 그러나 그들은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벰전4:17, 2:9-10; 엡2:19; 빌3:20).

7) 신약에서 - 주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구약에서처럼, 신약성경 역시 사랑의 표현으로서 손 대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롬12:9-21, esp. 13,20; 히13:1-3; 벧전4:8-11; 요3:5-8). 지도자들은 특히 나그네를 즐겁게 대접하여야 했다(딤후3:2).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릴 것을 말하고 있다. 산 제사의 실제적인 실천 사항을 열거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놀랍게도 손 대접도 포함되어 있다(13절). 이것은 손 대접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 준다.

손 대접은 시간이 나거나 형편이 되면 할 수 있는 멋진 과외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영적 의무이며 기독교를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제사'라는 말을 생각할 때 영웅적인 순교의 순간을 상상하지만, 신실한 손 대접에는 보통 작은 희생과 봉사의 행동들이 요구된다.

영웅적인 순교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부딪쳐야 하는 손 대접은 크고 작은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이다.

### 라브리의 손 대접

1) 대상: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대접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한계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브리는 구도자(seekers)들을 중심으로 받는다. 진리를 찾는 이들,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 따라서 간사들과 헬퍼들은 이들을 돕는 데에 방향을 맞추고 일을 하고 있다.

2) 방식: 라브리의 손 대접에 있어서 특징 중의 하나는, 간사들의 가정을 열고 손님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언제나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공동체들도 있다. 그러나 라브리는 각 가정으로 손님을 초청하여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베푼다. 물론 간사들도 죄인인지라 완벽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그들의 가정이 낙원도 아니다.

그러나 간사들은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손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라브리의 존재 목적이 가르침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라브리는 손님들을 학벌이나 믿음의 수준 등으로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라브리는 이 곳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 주셨다고 믿기에, 그보다 근본적으로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들이기에, 손님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삶을 나눈다.

3) 생활: 손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라브리는 공부나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손님들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존중받으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교육(self-education)하여 진리를 찾도록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성숙한 태도가 익숙지 않으나, 하나하나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자로 더욱 성장해 간다.

라브리는 손님이 간사의 도움을 얻기 위해 오는 곳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간사를 돕기도 하고 손님들끼리도 서로 돕기 때문에 더욱 큰 보람을 느낀다.

4) 우리의 한계: 우리에게 '왜 일년 내내 열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 누구라도 오고 싶을 때 오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불만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우리도 한계점에 이를 때가 있으며 무엇보다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라브리에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사실, 한편 우리의 죄와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맺는 말

여러분이 라브리에 온 이유는 다양하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같지만 자세한 사정은 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 곳에서 진리를 배우며 동시에 배운 진리를 실험라고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 간사들에게서 배우고, 어린 아이들에게서 배우고 서로에게서 배우라.

우리가 이 곳에 모인 것은 서로의 다른 점을 확인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인간이며 다 존귀한 존재로 대접해 주고 사랑하는 실험을 하기 위한 것이다. 서로를 대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 계심을 가까이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곳을 떠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라. 라브리의 손 대접에서 무엇이 배울 만 한가?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만 것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라브리는 실험장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애쓴다. 그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이다. 대접을 하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그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를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한 가족으로 함께 지내오신 것을 감사한다.